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정병모/(재)통신장학회 감사

**산** 다는 것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어딘가로 나아가는 뜻이다. —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에서 잠시 떠나고 싶어한다.

누렇게 말라가는 나뭇잎, 밤새우는 풀벌레소리, 질푸른 하늘 아래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그리고 석양녘 후미진 산기슭을 숨가쁘게 돌아드는 여심(旅心)을 실은 열차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사람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다. 기분 나빴던 슬픈 기억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되도록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구월에는 배가 부르고, 아무리 모진 사람도 구월에는 시(詩)를 읽으며, 아무리 외로운 사람도 구월에는 사귄 친구가 많다고 한다.

풍성함을 느끼며 나를 찾아 떠나는 길은 아무래도 철도를 따라가는 여행이어야 한다. 열차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두고 두고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여행은 고향을 못잊어 하는 시름이며, 생활에서의 추방을 뜻하는 외로움이다.

밤중에 들리는 열차의 기적 소리는 멀리 간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한다.

흘러간 얘기지만 아이러니 한 것은 그 기적 소리 때문에 역(驛)인근 마을의 출산율이 다른 마을 보다 높은 적이 있었다.

열차 여행은 의무도 없고, 특별한 뉴스도 없으며, 호기심 많은 이웃도 없고 이렇다할 목적도 없는 나그네 길인 것이다.

영화 「박하시탕」을 찍은 촬영지 간현행 열차를 탈 수도 있고, 하늘만 올려다 보이는 두메산골 승부의 눈꽃 순환열차도 타 봐야 한다. 눈덮인 들판을 마냥 달리는 장항선 열차는 또 어떠한가. 고독이 서럽도록 배어날 것이다.

이런 나그네 길은 오로지 나에게로 귀일된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오랫동안 잊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겸허함을 지나 엄격한 학문의 길과 같은 고행의 길이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9월 18일은 철도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철도 역사도 100년이 지났다.

헐떡이던 철마는 논두렁에 쓰러진 채 철마는 달리고 싶다며 울부짖은지 반세기 만에 경의선도 이어질 것 같다.

그 철마는 달리고 달려 고구려의 혼이 떠도는 중국 땅을 지나 시베리아로, 다시 유럽으로 뻗어갈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설치 미술가인 전수천교수는 2001년 5월 1일, 뉴욕에서 LA까지 6,000km를 횡단하는 움직이는 열차 그림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미대륙을 캔버스로 하고 백의 민족을 상징하는 은빛 천을 씌운 열차 12량을 붓삼아, 열차의 주행 자체를 거대한 드로잉으로 전환 시키는 장대한 이벤트인 것이다.

우리가 이 열차는 물론 경의선의 중국횡단 열차와 경원선의 시베리아 횡단열차에도 몸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겠는가?